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



김 해 시 의 회
(최정현 의원 대표발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 (최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4
----------	-----

발의연월일 : 2024. 9.

발 의 자 : 최정현, 김창수, 김진규,
조팔도, 박은희, 허윤옥,
이혜영, 안선환, 송유인,
주정영, 이철훈, 김주섭,
김진일, 강영수, 김동관,
이미애, 허수정, 정희열,
송재석, 김유상,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김영서,
배현주 의원(25명)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가야고분군 7곳 중 5곳이 경남에 위치하며, 특히 김해시는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편리한 광역교통망으로 국내외 방문객의 접근성이 뛰어난은 물론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가야문화연구소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또한 가야고분군이 속한 10개 지자체에서 공동 구성한 통합관리지원단에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기구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설립 위치를 검토한 결과 김해시가 최적지로 도출됨에 따라 경남 김해시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촉구하고자 함.

3. 수신자 : 국무총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경남 김해시」 설치 촉구 결의안

2023년 9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김해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남원시, 고령군에 자리한 7곳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연속유산인 가야고분군의 특성상 체계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에 10개 지자체에서 공동 구성한 통합관리지원단에서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고려하여 연구, 보존관리, 홍보, 거버넌스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할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형태와 위치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경남 김해시가 최적지로 도출되었다.

전국은 여러 역사문화권으로 분류되는데, 경남은 가야 역사문화권, 경북은 신라 역사문화권, 전북은 백제 역사문화권의 중심지로 구분되어 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총 7곳 중 5곳이 경남에 자리하고, 특히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중요 가야유적들이 밀집한 김해시는 가야의 발원지로 역사적 상징성이 짙다. 따라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는 가야역사문화권의 중심인 김해시에 위치하여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김해시는 이 달 개관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내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비 등 비용 절감과 기구 설치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가야고분군의 홍보 및 활용에 용이한 가야유적들의 67%가 경남에 집중된 가운데,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와의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여 가야역사문화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김해시는 가야고분군 통합관리보존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김해시는 편리한 광역 교통망으로 국내·외 방문객의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아니라, 문화·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춰 통합기구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근무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연구·교육 인력의 확보 또한 용이하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유산청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에 있어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도출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김해시에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이달 개관 예정인 김해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와의 협업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구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한 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2024. 9. 2.

경상남도 김해시의회